

현 노동자 가족같이 즐기고 사랑하는 노동환경 위해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5월 1일(수) 10시 교우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성 요셉 축일 미사를 김원호 바오로(사회사목국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회장) 신부님께서 집전하였다. 말씀의 전례 중 복음 강론에서 김 바오로 신부님은 ‘오늘 복음이 어떻게 저를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 13, 57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 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

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저의 친정이고 사제의 길을 걷게 한 본당에서 아마 전원은 아니고 절반쯤은 저를 환영하지요. 오늘은 노동자의 날이고 노동자 성 요셉 축일입니다. 요셉 성인은 3월에 성 요셉 성월, 5월은 노동자 요셉 축일이 연간 두 번이나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근로를 제공하여 품삯 받아 성가정을 이끌어 오신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권리를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노동절로도 불립니다. '메이데이'(May Day)로도 알려졌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들어서 기계 같이 일하는 노동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일 노동시간 8시간 쟁취를 위해서 1886년 미국 시카고 8만 명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 뛰쳐나와 파업 집회 중에 참여한 어린 소녀와 노동자를 포함한 6명이 죽고, 주도자 8명이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던 노동자 30만명이 참가하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구호를 외치며 1890년 5월 1일 시위한 날이 노동절로 정해졌습니다. 저도 사회사목국 노동사목부 노동분쟁으로 10년간 투쟁하는 곳



을 접하고 종교인으로서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현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족같이 노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동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란 강론 후 성찬의 전례에서 공교롭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부님의 부친과 모친이 비추어져 신부님께서 친정(본가)에서 노동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